

전국 광주/호남

##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댐 기술개발 '앞장'

30만 톤 저장 용량 댐 속초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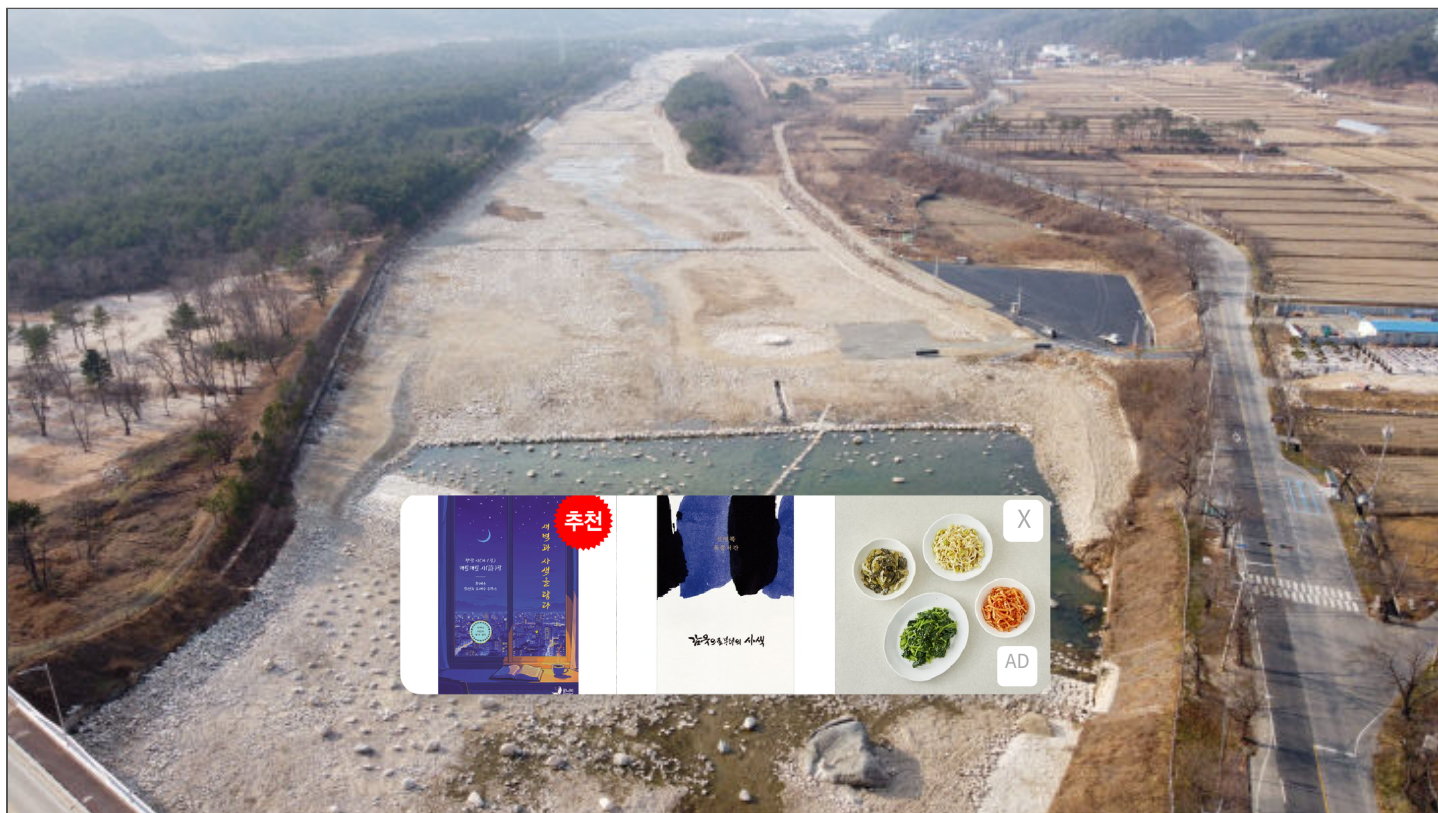
이정진 기자



승인 2025-05-07 15:15



중도일보 다음뉴스, 유튜브 채널과  
다양한 SNS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강원 쌍천 제2지하수댐./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학계 등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

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하수댐은 지하에서 모래, 자갈층이 두껍게 발달한 지역에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관정이나 집수정을 활용해 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시설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공모에 참가한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도화엔지니어링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 4월 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지하수댐 입지 선정부터 설계, 운영, 연계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4년간 연구비 353억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시범 운영 공간(테스트 베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대외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KRC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



공사는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강원 속초에 지하수댐을 설치했다. 최대 3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고, 일평균 7000톤을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지하수댐 분야 전문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지금까지 5개 농업용 지하수댐과 1개 생활용 지하수댐을 설치·운영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는 '지하수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

## 추천기사



[2025 경주 APEC] 세계적 기업들 한국에 13조원 투자계획 발표

---

대전 정치권, 이태원 참사 3주기 맞아 "안전한 사회 만들 것" 한목소리